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. 4(목)	
		작 성 문 의	경제실 산업통상기업정책과 과장 이은청 / 사무관 박순홍 (Tel. 044-200-2211)
엠바고	2월4일 16시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‘전통시장에서 장보재’, 설 경기 살리고! 이웃과 나누고!

- ‘세종시민 황교안 총리’, 설 맞아 세종전통시장서 명절 장보기 나서
- “세종시 이웃들과 함께 나눠먹어요” 구매한 물품을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

□ 세종시민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설날을 앞두고 5일장이 열리는 세종전통시장*(세종시 조치원읍 소재)에서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.

※ 중소기업청장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 참석

* 세종전통시장 개요

- 시장규모 : 면적 30,560㎡ (점포 427개, 상인 615명)
- 영업현황('14년) : 일평균 매출액 19백만원, 일평균 고객수 4,500명
- 주요 취급품목 : 조치원복숭아, 파닭, 부추칼국수 등의 먹거리가 대표음식

○ 이날 총리의 세종전통시장 방문은 주요 명절 품목에 대한 수급과 가격을 점검하는 한편,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□ 황교안 총리는 과일, 정육, 생선, 떡 판매 상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명절 물품들을 구입하면서

○ 주요 품목들의 수급, 가격동향, 보관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묻는 한편, 장사를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청취하였다.

- 한편 황총리는 이날 구입한 물품들을 인근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실천하였다.

□ 장보기에 앞서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한 황 총리는

- 2014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도 세종전통시장이 수상(산업부장관상)한 것을 언급하며, 앞으로 조치원과 세종시간 도로가 확장*되어 세종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
* 조치원-신도시간 도로 확장 : 6차로로 확장(현재 4차로)하기로 결정, 8차로 규모 재조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중

- 덧붙여 “올해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히는 한편,

- “상인회를 비롯한 민간쪽에서도 청년상인 창업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등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자조 노력에 힘 써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'16년도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성화시장 개발, 청년상인 육성,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2 자료 참고

□ **시장 개요**

- 소재지 :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 8길 42
- 개설일 : 1931년 조치원시장으로 개설
 - * '13.4월 조치원, 조치원우리, 조치원재래시장 등 3개 시장을 하나로 통합
- 상인회 : 회장 김석훈
 - * 임원(17명) : 회장1, 부회장2, 총무1, 감사2, 운영위원8, 자문위원3
- 시장규모 : 면적 30,560m² (점포 427개*, 상인 615명)
 - * 점포유형 : 점포 325개 + 노점102개(5일장)
- 영업현황('14년) : 일평균 매출액 19백만원, 일평균 고객수 4,500명
 - * 주요 취급품목 : 조치원복숭아, 파닭, 부추칼국수 등의 먹거리가 대표음식
- 정부지원 : 시설현대화 93억원('03~'15), 경영현대화 2.3억원('05~'15)

□ **주요 특징**

- (상설 및 5일장) 상설시장인 동시에, 5일장(4·9일)이 열림
- (캐릭터개발) 지역 특화상품 '복숭아'를 소재로 한 캐릭터 개발 후 홍보수단(아케이드제작 등)으로 활용
- (지역문화 연계) 지역의 유명축제(조치원 복숭아 축제)의 장소가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직판장, 체험장 운영 등으로 방문객 2배 증가

□ **시장 전경**



1 특성화 시장 육성

- ① (글로벌명품) 외국 관광객이 한국의 맛과 멋, 흥을 체험하고 쇼핑이 가능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 육성
 - * ('15) 50억, 6곳 → ('16) 100억, 10곳(신규 4곳, 계속 6곳),
 - ** 시장당 최대 3년간 50억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② (문화관광형) 지역 문화·관광과 쇼핑 연계 시장으로 육성
 - * '15. 248.5억원, 81곳(신규 33, 계속 48) → '16. 248.5억원, 75곳(신규 19, 계속 56)
 - ** 시장당 최대 3년간 18억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③ (골목형) '1시장 1특색'의 특화상품 개발, 대표브랜드로 육성
 - * ('15) 210억원, 73곳 → ('16) 210억원, 70곳, 시장당 최대 6억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2 청년상인 육성

- ① (청년상인 육성)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치는 청년장사꾼 육성 (51억원, 200명) 및 집적지구인 청년몰 조성 (127.5억원, 17곳)
- ② (전통시장-대학협력) 전통시장과 대학간의 협업을 통한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화 주도 (29.6억원, 신규6·계속 16곳 총22곳)

3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

- ① (상인교육) 점포대학(40곳, 신상품개발 등), 청년상인 가업승계아카데미(8회), 상인대학원(5곳, 상인리더 육성) 등 (32.9억원, 3만명)
- ② (상인조직역량) 상인조직에 전문인력 지원(시장매니저, 18억원, 145명)

4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

- ① (시설현대화) 노후화된 시설개선,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
 - * ('15) 805억원, 303개 시장 → ('16) 808억원, 284개 시장, 국비60%, 지방비30%, 민간10%
- ② (주차환경 개선) 주차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촉진
 - * ('15) 965억원, 111개 시장 → ('16) 1,001억원, 135개 시장, 국비 60%, 지방비 40%